

# 농생명 SW 융합 서비스 사업화 추진

### 전주시, 2024년까지 총 140억원 투입해... 플랫폼 구축해 관련 산업 육성 지원

전주시가 지역 특화산업인 농생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SW(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플랫폼 사업화' 공모사업에 '빅데이터 기반 농생명 SW 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이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생명산업과 ICT(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농생명 분야 사업화,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빅데이터 분야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전라북도과 함께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비 68억을 포함한 총 1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북테크노파크, 전

자부품연구원의 협업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 출연기관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 △농생명 SW 융합 신규 서비스 사업화 △SW 융합클러스터 1.0과의 연계 △산학연계 특화정보 연구 등을 통해 농생명 SW 융합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자부품연구원은 △기업 간 협업을 위한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운영 △농생명 데이터 수집·분석 △빅데이터 서비스 전문가 그룹 지원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 등을 전담하고, 전북테크노파크의 경우에는 △농생명 SW 교류회 △전문가 세미나 △글로벌 사업화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시는 140명의 빅데이터 서

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157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20건 이상의 서비스를 사업화하고 글로벌 서비스로 4건 이상 육성하기로 했다.

시는 2015년부터 지난 5년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SW 융합클러스터 1.0 사업 중 개방형 SW융합 R&D(연구개발)지원 사업을 수행해왔으며 48개의 과제지원, 신규고용 174명, 지원기업 매출 평균 4.6% 증가, 102건 특허 출원·등록 등의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시는 SW 융합클러스터 2.0 사업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분야인 스마트 농생명 산업에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과 SW의 융합을 지원해 1.0 사업으로 조성된 농생명 SW 생태계 기반을 비즈니스 지원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덕진구, 비대면 무인민원발급기 활용 적극 홍보

### 하가지구·예코시티 주민 인근 금융기관서 가족관계 증명 발급 개시

덕진구는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을 막고 공공기관 방문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대면 접촉을 줄여 원활한 민원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한 비대면 민원처리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각종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과의 대면 접촉이 많은 수밖에 없는 민원청구 특성상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비대면 접촉 민원 처리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민원서류 발급 시 관공서를 찾아가지 않고 인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발급 대기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다수의 제증명 수수료가 관공서 창구보다

50% 저렴하다. 관내에는 구청을 포함해 일부 동주민센터와 전북대학교, 금융기관 등 총 18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급 가능한 서류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초본 등 89종이다.

그러나, 관내 금융기관 2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 가족관계(8종)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올해 2월 일제점검을 통하여 윈도우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하고 경보기를 탑재하는 등 보안을 더욱 강화했다. 시험운행을 통해 인근 밀집지역인 하가지구와 예코시티 주민들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근 금융기관(인후신협 하가



지점, 예코시티 새마을금고 더샵 2차 지점)에서 가족관계(8종)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어 민원불편이 해소 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설공단, 습식 청소 장비 도입

전주시설공단(이사장 백순기)는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지하 공영주차장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습식 청소 장비를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은 홍산광장과 비보이광장, 서신동 등 총 3개 지하 공영주차장에 각 1대씩 총 3대의 보행식 습식 자동 바닥 청소기를 운영하고 있다. 습식 자동 바닥 청소기를 이용하면 넓은 면적의

건물식 주차장 바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공단은 습식 청소 장비의 도입과 함께 기존의 공조시스템을 통한 환기 관리로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지하 공영주차장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산광장 등 3개 지하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폼알데하이드(HCHO) 등 7개 항목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측정 한 결과 모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유지기준 이하로 측정됐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르면 연면적 2000㎡ 이상인 실내주차장은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공단은 총 80개 유·무로 주차장을 운영 중이며, 이중 실내주차장은 총 3개다. 이들 실내주차장은 3692~4885㎡ 규모로, 각 120~131명의 주차면을 갖추고 있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전주시는 '제4회 전주 세계 슬로어워드' 선정을 위한 공모 접수를 실시한다. 사진은 제3회 전주 세계 슬로어워드 모습.

# '제4회 전주 세계 슬로어워드' 공모 접수

### 지역 고유 문화·전통산업 계승·자연환경보호 사례 등 7월 10일까지 접수 실시

국제 도심형 슬로시티인 전주시가 느낌과 행복의 슬로시티 철학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 온 공모자를 찾아 나섰다.

전주시는 12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제4회 전주 세계 슬로어워드' 선정을 위한 공모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7년 세계 최초로 시작해 4회째를 맞은 '전주 세계 슬로어워드'는 슬로시티 철학과 슬로시티 정책 사례의 실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기리고 세계인이 공감하는 모범사례로 공유하고자 진행된다.

공모내용은 △지역 고유의 문화와 전통산업을 지키기 위한 활동 사례 △공동체 복원을 위한 주민 주도 추진사업 및 캠페인 사례 △삶의 질 개선과 슬로라이프를 통한 행복 실현을 위한 활동 사례 △자연 환

경보호 및 자연경관 개선을 위한 활동 사례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개인·단체는 전주 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A4용지 20매 내외로 작성된 세부설명자료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주시청 관광산업과(063-281-5059)로 문의하면 된다.

수상자는 국제슬로시티연맹과 관계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구성된 전주 슬로어워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국내 부문 2명과 국외 부문 2명으로 선정하며 국내 부문은 트로피와 시상금(200만원) 지급, 국외부문은 수상자와 협의하여 항공료와 국내체제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오는 9월 18일 팔복예술

공장에서 개최하는 '제4회 전주세계슬로포럼&슬로어워드'에서 진행되며 최종 수상자는 시상식 참석과 사례발표를 위해 전주를 방문하게 된다.

한편 역대 전주 세계 슬로어워드 수상자 중 국외 부문은 △마우로 밀리오리니 이탈리아 아슬로 시장 스나이벨 벨 호주 카툼바 건축가 미구엘 로이스 스페인 뽀페베라 시장 △주세페 저머니 이탈리아 호르비에토 시장 △피에르 보우드란 프랑스 미함드 시장 △로렌드 라제리 이탈리아 살로르노 시장 등 6명이며 국내 부문 수상자는 △박원순 서울시장 △나영석 PD △장석주 시인 △함정희 함씨네토종콩 식품 대표 △노박래 서천군수 △심영배 전주지점놀이보존회 대표 등 7명이 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스마트시티 영상관제 통합플랫폼 구축한다

### 재난·교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현장 CCTV 영상 경찰·소방 등에 전달해 골든타임 확보 기대

전주시가 재난, 교통 등 긴급상황 발생 현장의 CCTV 영상을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에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6억원 등 총 12억원을 투입해 오는 5월까지 '스마트시티 영상관제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통합플랫폼은 전주시역 1,305개소

에 설치된 3,200여대의 전주시 CCTV 관제센터 영상정보를 중심으로 112, 119와 연계해 재난구호와 범죄예방 등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시는 긴급상황 발생 시 △강도, 납치 등 강력범죄에 대한 112 긴급영상상과 긴급출동 지원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출동 지원 △재난상황 지원 등 도시안전 연계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조

기대응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시는 유관기관과의 통합플랫폼 네트워크 구축을 마무리해 다음달 연계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해 5월중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향후 시는 구축된 플랫폼을 활용해 환경부의 배출가스 위반차량 단속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 등을 검토하여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